

광주 학교운동장서 또 무더기 유해물질

호르몬 교란하는 프탈레이트 21개교 우레탄 트랙서 검출 학부모들 불안 날로 커져 시교육청 교체작업 나서기로 전남교육청 안일한 대처 원성

‘중금속 우레탄 운동장’ 파동 3년 만에 광주지역 학교 운동장에서 또 다시 유해물질이 발견됐다. 운동장 출입을 제한하는 등 조치에 나섰지만 시설 교체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데다, 학생들의 운동장 사용을 완벽히 제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전남지역은 우레탄과 인공잔디가 설치된 상당수 학교의 운동장에서 유해물질 검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내년이나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아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 등 인공구조물이 설치된 광주지역 32개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21개 학교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체육고 우레탄 육상 경기장에서는 호르몬 작용을 교란해 생식능력과 태아발달 저해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프탈레이트’가 기준치(0.1% 이하)보다 높은 0.99% 검출됐다. 대촌중은 인조잔디와 우레탄 농구장 등에서 각각 0.14%, 1.95%의 프탈레이트가 검출됐다. 시교육청은 2년마다 정기 검사를 하도록 한 ‘친환경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4월부터 검사를 진행했다. 2016년 7월 우레탄 트랙 파동 당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거나 검사 대상이 아니었던 학교 운동장이 대상이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납과 수은 등 중금속 검사만 했다”고 프탈레이트 검출 등을

추가하면서 유해물질 기준치가 초과한 학교가 늘었다”며 “노후화된 시설에서 검출되는 사례가 더 많았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해당 학교 시설 출입을 통제하고, 추후 인공구조물을 철거한 뒤 흙(마사토)으로 교체하는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시설 교체에 필요한 예산은 26억8000만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현재 확보한 7억3000만원을 제외한 부족한 예산 19억5000만원은 2학기 예비비를 순차적으로 풀어서 2019학년도(내년 3월)까지 100% 교체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광주 학교 운동장에서 또 다시 유해물질이 검출되면서 전남지역 학교 역시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전남도교육청은 내년 봄이나 유해성 검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알려져 자녀의 건강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학교 운동장 유해성 검

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친환경 지역 학교 운동장 조성 조례’가 지난 4월 4일 공포됨에 따라 최근에는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다. 이에 따라 전체 827개 학교 중 181개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의 유해성 검사는 내년 초 예산편성을 끝낸 후에야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우레탄 트랙 등 인공구조물에 대한 조사는 이보다 늦어지고, 유해성 검사 이후 시설 교체 등 조치까지 최소 1년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당장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지만 시설폐쇄 등 실행 가능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교육청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야 관련 조례가 공포되면서 유해성 검사를 위한 기초자료 작성과 예산편성 등은 내년에는 진행될 것”이라며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 당장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불안한 광양제철... 이번엔 정전사고

폭발 방지 비상벨브 열리며 불꽃·검은 연기 치솟아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정전으로 인해 불꽃과 검은 연기가 발생해 주민들이 한동안 불안에 떨었다. 가동 이래 수차례 폭발사고가 일어났던 광양제철에서 또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밀 점검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일 오전 9시 10분께 광양시 태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검은 연기와 불꽃이 치솟았다. 화재나 폭발로 이어지지 않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광양제철소 인근 태인동, 금호동 주민들은 1시간여 동안 공포에 휩싸였다. 이번 사고는 변전소 이상으로 정전이 발생해 제철소 내 코크스(석탄) 공장과 고로 등의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잔류 가스가 배출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장 내 압력이 높아지며 폭발방지를 위해 자동으로 브리더(용광로 압력을 낮추기 위한 별도의 배관)의 안전벨브가 열렸고, 배관 안에 있던 가스에 불이 붙어 불꽃과 연기가 외부로 노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광양제철측은 배관 내부에 남아 있는 가스를 인위적으로 태우며 불꽃은 1시간여 동안 관측됐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소방차 20대가 인근에 대기하고 있었으나, 다행히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광양제철 관계자는 “해당 공장은 비교적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어 노후화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정확한 정전 원인은 아직 파악 중이다”고 말했다. 앞서 광양제철소에선 지난달 1일 포스넵(니켈 추출 설비) 공장에서 벨브 교체를 위한 용접 작업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졌으며, 지난 2011년과 2014년에도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폭발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주교육청, 회계자료 제출 거부 사립유치원 4곳 고발

광주시교육청이 감사 과정에서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유치원 등 지역 사립유치원 4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광주시교육청은 “감사 과정에서 회계장부와 법인통장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은 사립유치원 4곳을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중 3곳은 지난해에도 감사에 불응해 검찰에 고발됐던 11개 유치원에 포함됐던 곳이다. 이들 유치원은 회계장부 등 증빙서류를 분실했다거나, 회계를 맡긴 외주업체와

저온창고 신축 근로자 추락사

지난 29일 오후 1시 20분께 광주시 북구의 한 저온창고 신축 공사현장 2층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40대가 1층으로 추락했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이 남성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hb@kwangju.co.kr

남성 유인 성관계 후 협박 수천만원 뜯은 4인조 공갈단

○~50대 남성을 유인해 성관계를 가진 뒤 가족에게 알린다고 협박해 퇴직금 수천만원을 뜯어낸 4인조 전문 공갈단이 경찰청했다. ○~1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된 A(55)씨 등 4명은 지난 5월 19일 오후 5시에 광주시 서구 농성동의 한 모텔에서 B(59)씨를 수차례 때리고 협박해 계좌이체를 통해 6000만원을 뜯어냈다는 것. ○~A씨 등은 B씨가 거액의 퇴직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2주간 합숙을 하며 설계자, 아내, 남편 등 각자 역할을 나눈 뒤 아내 역할을 맡은 C(여·29)씨가 B씨를 유인해 성관계를 갖고 남편 역할을 맡은 D(47)씨가 모텔에 들어가 B씨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 관계자는 “서울·부산·광주에서 한달여의 잠복 끝에 알당 중 3명유치원을 불잡았으며 D씨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여성 집 침입 시도 검거 40대 절도 5건 등 추가 범행 조사

술에 취한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다 주저 침입,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모(40)씨의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 광주광산경찰은 1일 “김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25일 새벽 4시 35분께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의 한 성인PC방 종업원 A(60)씨에게 졸피뎀(수면유도제)을 넣은 박카스를 먹인 뒤 A씨가 잠이 들자 현금 10만원을 훔치는 등 증거를 없애기 위해 CC-TV까지 훔쳐 달아난 혐의다. A씨는 또 전날 낮 12시께도 신창동의 한 원룸 창문을 열고 들어가 30여만원이 든 저금통을 훔치는 등 5월 한달간 광산구 일대에서 5회에 걸쳐 350여만원을 훔친 혐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공무직 노조 총파업 1일 광주시 남구청 앞에서 열린 광주시 자치단체 공무직노조 총파업대회에서 공무직노조원들이 ‘공무직만 차별하는 퇴직금제도 개선하라’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식당서 폭행 40대 주폭 구속

광주동부경찰은 1일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70대 식당 여주인과 50대 여성 종업원을 때린 A(49)씨를 폭행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새벽 2시 10분께 광주시 동구 한 식당에서 식당주인 B(여·75)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폭행을 제지하는 C(여·55)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각각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검찰, 시신 없이 고유정 기소... 범행도구 주요 증거 확보

살인·사체손괴·은닉 3개 혐의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고유정(36)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일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고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시신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검찰은 범행도구를 주요 증거로 확보했다.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

설에 버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고씨는 지난달 12일 검찰 송치 직후 경찰에서의 수사사항 언론 노출 등을 문제 삼으며 진술 거부로 일관하다가 후반에는 ‘기억이 파편화돼 일체의 진술을 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10회에 걸쳐 고씨를 소환해 설득했지만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이라 한계가 있었다”며 “객관적인 범행 동기와 사건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태양광발전소 연계 ESS에너지저장장치

-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태양광 발전소에 ESS 설치시 REC 가중치 5.0배
- 설치방법 : 본인부담 10% · 용자 90%
- 1년거치 14년상환 (1개월이내 설치완료)

★태양광발전사업소, 매도·매수 하실 분 상담환영 **총괄본부장 010-9896-9754**

★태양광분양 및 태양광 현재설치중, 설치완료, 개발행위완료, 선로확보, 물건 다량확보

제품

LG ESS 삼성SDI SAMSUNG

ESS · 설계 · 시공

ESS통합시스템 15년 효율보증서 발행 (무정전 전력 공급장치)

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http://www.etis.go.kr>

태양광 발전소에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대폭 확대

- 태양광 +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가중치 5.0 부여) -

정부와 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신산업발전 4개 단계(태양광·전력·전선·제1차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중 협력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력 체결을 통해 전면적인 규제 정비 개시

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특별조례, 재정 지원

사업에 예산지원 등 대규모 프로젝트(4조원) 추진 가능함에 맞춰

전국 지사·대리점·영업자 모집

대표전화 1577-8963

전남지사 010-6838-3366

산·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주)성광에너지

주소 | 순천시 중양로 317 2층

전화 | ☎061-752-7000 Fax | 061-751-6000

총괄본부장 | 010-9896-9754